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2. 20.(수) 11:00 < 2.21.(수) 조간 > 배포 2024. 2. 20.(수)

업종별 단체와 소통하며 수출 7천억 불, 투자 110조 원 달성에 박차

- 1차관, 11대 업종 협·단체와 간담회 개최
- '新산업정책2.0'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추진
- 업종별 협·단체에 '수출·투자 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지원 강화
- 최근 잇따른 산업현장 재해사고 관련,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0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1개 핵심 업종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업계는 올해 수출 7천억 불, 투자 110조 원 달성을 위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강경성 1차관은 이번 대표 업종 전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방문,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매주 이어가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종별로 수출·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올해 수출 7천억 불, 설비투자 110조 원을 위한 전략과 건의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新산업정책2.0』의 핵심인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체감 성과를 만드는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장·차관이 직접 수출·투자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협·단체에 업종별로 '수출·투자 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업종 단체가 산업부, 대한상의와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강 차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중대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는 만큼, 협·단체들이 기업들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장민재 (044-203-42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간담회 개요**

1. 추진 배경

○ 수출, 투자 촉진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업종 협·단체와 '24년 중점 추진계획 논의

2. 회의 개요 (※ 회의 비공개)

○ 일 시: '24. 2. 20일(화) 11:30~13: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1F EC룸

○ 참 석 자

▲ 산업부: 1차관, 산업정책과장, 반도체과장, 자동차과장, 철강세라믹과장

▲ 협·단체(11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가전, 바이오, 로봇,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석유화학

▲ 간사기관: 산업연구원

○ 논의내용

❶ '24년 산업정책방향

❷ '24년 업종별 중점 추진계획 및 애로 사항

❸ 최근 산업현장 인명사고 계기 안전 조치 당부